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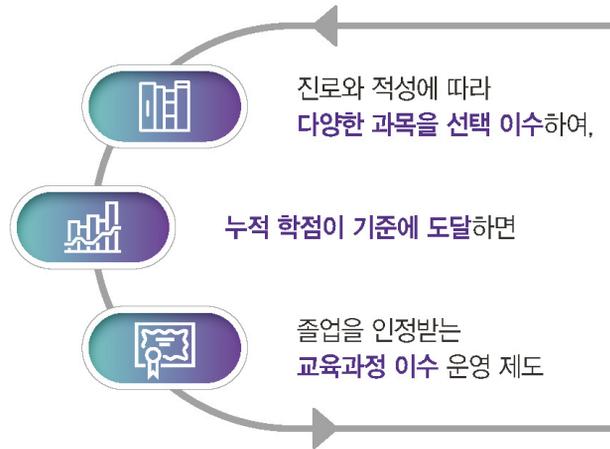
학업 성취율 판단 근거로서 영어과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영어과는 총괄로 주형미(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개발진으로 맹은경(아주대), 송민영(고려사이버대), 우은정(상일여고), 장선미(호서대), 조지형(용문중), 황종배(건국대) / 검토진으로 김애자(금천고), 오윤경(봉일천고), 양하늬(잠일고), 조은비(태릉고), 정은해(세종 양지고), 이희종(성보고), 장은경(압구정고), 김선영(위례한빛고), 서소영(의왕고), 노윤오(인천원당고) 등이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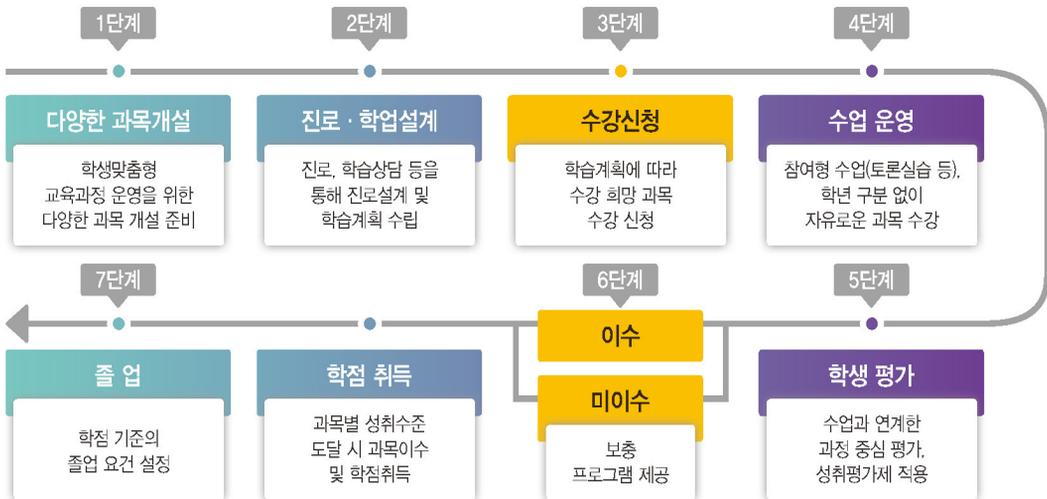
본 내용은 201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 탐색'(노은희, 이광우, 김진숙, 신향수, 변희현, 주형미, 김영은, 지영래, 연구보고 RRC 2019-3)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전체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www.kice.re.kr(자료마당 → 연구보고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1 고교학점제에서의 교과 이수 기준 안내

▶ 고교학점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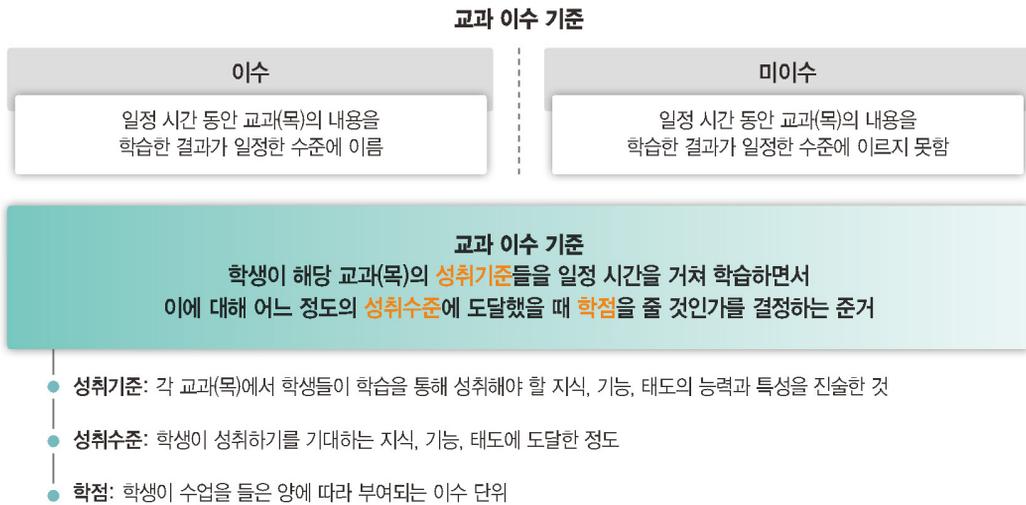


▶ 고교학점제의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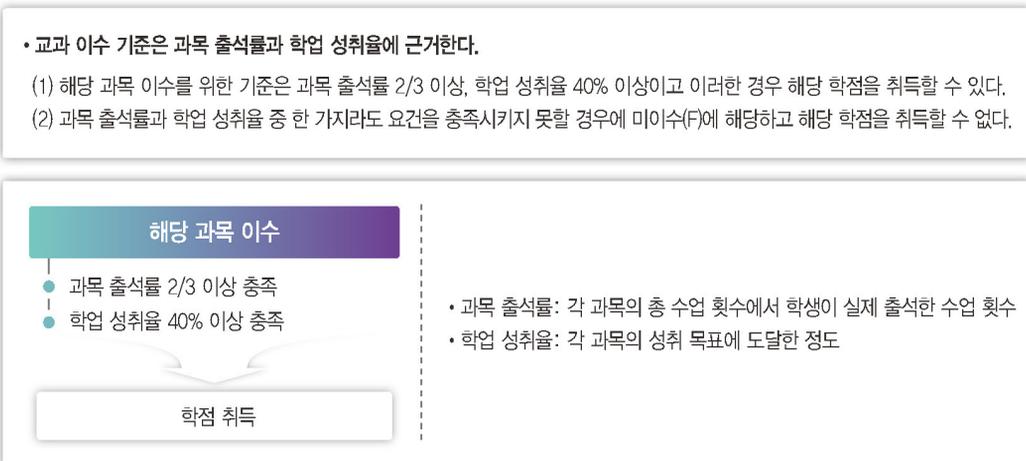


▶ 교과 이수 기준의 의미

- 교과 이수 기준은 해당 교과(목)의 이수와 미이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러한 교과 이수 기준에 따라 이수로 판정이 되면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 교과 이수 기준(안)



▶ 교과 이수 기준 설정에 따른 교과 성취율 및 성취도(안)

- 현행 성취평가제를 토대로 할 때, 현행 60% 미만인 E 수준에서 하한선을 40%로 두어 40% 이상~60% 미만으로 재설정하여 이 수준까지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달성한 ‘이수’로 판정함.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최소 학업 성취수준)
40% 미만	F(미이수)

↑ 이수
↓ 미이수

▶ 학업 성취율 판단 근거로서 최소 학업 성취수준 개발

- 최소 학업 성취수준은 교육 목표에 비추어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내용과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시한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말함.
- 최소 학업 성취수준은 크게 성취율 범위와 이에 대응하는 성취수준 진술문으로 구성되는데, 성취율 범위는 40% 이상~60% 미만으로 교과 공통으로 설정한 바, 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진술한 성취수준 진술문을 개발하여 교사에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음.

▶ 교과 공통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방향

- 교과(목)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한다. 성취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지식, 기능, 태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으므로 성취기준을 근거로 할 경우 핵심역량의 성취 정도도 반영할 수 있다.
- 교과(목)에서 기대하는 최소한의 능력 정도를 담아야 한다. 다만, 최소한의 능력이라도 학업 성취에 대한 교과 이수의 판정 근거가 되므로, 교과(목)에서 기대하는 적절한 정도의 능력은 담보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성취평가제 E 수준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현행 성취평가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최소 학업 성취수준 설정은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성취평가제에서 최저의 성취수준으로 설정한 E 수준 범위에서 새롭게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능력 특성을 기술해야 한다.

▶ 교과 공통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단계



- ① 문헌 분석 단계 : 최소 학업 성취수준에 대한 진술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해야 하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와 이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과 단위/영역별 성취 수준이 수록된 보고서를 분석함. 또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외의 최소 학업 성취 수준 진술문의 제시 방식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② 교과 개발 방향 수립 단계 : 교과 간 공유해야 할 공통적인 개발 원리를 개발하고 교과 별로 개발할 대상 과목을 선정함. 이때 세부적으로는 개발 단위, 진술 항목 및 표현 방식 정도 등을 교과 간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참조해야 할 지침도 마련함.
- ③ 최소 학업 성취수준 개발 단계 : 각 교과별로 교과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초안을 개발하면서 교과 간 공유해야 할 사안을 조율해 나감.
- ④ 현장 적합성 검토 단계 : 각 교과별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검토단을 구성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초안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실시함. 현장 적합성 검토를 받기 위해 사전에 모든 검토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고교학점제에서 최소 학업 성취수준의 의미와 기능, 개발 방향과 의도, 검토 항목과 방법을 공유함. 이는

검토의 눈높이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과정임. 워크숍 이후 검토자들은 개발된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이 판단 근거 자료로서 적합한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이후 교과 전문가 패널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을 수정함.

- ⑤ 전문가 타당성 검토 단계 : 현장 적합성 검토에 따라 수정된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에 대해 다시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타당성을 점검 받음.
- ⑥ 최종안 개발 단계 : 교과 전문가 패널이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검토 의견 및 수정 방향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을 확정함.

▶ 교과 공통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지침

교과별 개발 단위에 따른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판단 근거’ 등으로 구성된다. 단위/영역별 성취수준이 ‘일반적 특성’만을 진술한 것에 비해, 이수와 미이수를 판정하는 근거 자료로서 최소 학업 성취수준은 교사의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일반적 특성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단위/영역/ 핵심 개념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①	.
		②	. .
		③	. . .
		⋮	

- ① 단위/영역/핵심 개념 : 교과(목)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의 개발 단위를 결정한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에 근거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을 개발하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의 개발 단위를 준용하고자 한다.¹⁾ 즉,

1) 교과별 평가기준은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2015개정교육과정→평가기준)에서 찾을 수 있음.

최소 학업 성취수준의 개발 단위는 각 교과에서 설정한 단위/영역별 성취수준을 진술한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② 일반적 특성 :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은 현행 단위/영역별 성취수준 E(60% 미만)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다. 이때, 단위 또는 영역에 포함된 성취기준의 평가기준 '하'와 단위/영역별 성취수준 E(60% 미만)를 재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취수준 E(40% 이상~60% 미만)의 일반적 특성으로 적합한지 살피고 필요 시 새롭게 진술한다.
- ③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새로 설정한 단위/영역별 성취수준 E(40% 이상~60% 미만)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진술문을 하위 항목으로 나눈다. 이는 일반적 특성의 진술문이 보통 포괄적이어서 교사가 이를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그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하위 항목으로 나누는 기준은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며 단위/영역에 포함된 핵심적인 성취기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 ④ 수행 활동/판단 근거 : 세분화된 하위 항목 특성별로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수행 활동/판단 근거는 40% 이상~60% 미만의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보여줄 만한 전형적인 모습을 가급적 구체적인 양상으로 진술함으로써, 교사가 이를 통해 그 수준 차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시범 개발 과목

- 고교학점제의 학교 현장 적용을 목적으로, 우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5개 교과 10개 과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마련함. 교과별로 공통 과목 1개와 선택 비율이 높은 일반 선택 과목 1개로 한정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을 개발하여 제시함.

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개발 과목	공통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일반 선택 과목	독서	수학 I	독해와 작문	사회·문화	물리학 I

02

영어과 교과 이수 기준(안) 개발

가. 공통 과목 <영어>

공통 과목 <영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총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듣기 영역은 5개 성취기준, 말하기 영역은 4개 성취기준, 읽기 영역은 6개 성취기준, 쓰기 영역은 6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총 21개의 성취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시 이러한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21개 성취기준의 평가기준과 영역별 성취수준을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성취평가제에 따른 평가를 실행하였다.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성취평가제에 기반하여 운영되므로, 본 연구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도 이를 토대로 개발하였다.

(1) 듣기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제시된 듣기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기준 ‘하’를 재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절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의 듣기 영역 성취수준 ‘E’를 재검토한 결과, 성취수준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리하였다. 듣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 구분은 크게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글(text)의 수준, 글 제시 방식, 학생이 수행하는 결과의 정확성 정도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듣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반영하여 성취수준 E의 진술문을 새로 수정하였다.

듣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수행 활동/판단 근거는 교사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표 1>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듣기·말하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E, 40% 이상 60% 미만) 진술문이다.

표 1 | 공통 과목 <영어> 듣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영역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듣기	친숙한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매우 짧고 단순한 말이나 대화를 반복하여 듣고 세부 정보, 주제 및 요지, 내용의 논리적 관계, 화자의 의도나 목적, 화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²⁾	① 매우 짧고 단순한 말이나 대화를 반복하여 듣고 세부 정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주제, 그림, 사진, 도표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② 매우 짧고 단순한 말이나 대화를 반복해서 듣고, 주제 및 요지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한다.
		③ 매우 짧고 단순한 말이나 대화를 반복해서 듣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및 화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일이나 사건의 순서를 파악한다. •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를 파악한다.
		④ 매우 짧고 단순한 말이나 대화를 반복해서 듣고, 화자의 생각을 이해하여 화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⑤ 매우 짧고 단순한 말이나 대화를 반복해서 듣고, 화자의 상황을 이해하여 심정이나 태도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파악한다.

듣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표 1>과 같이 5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7개의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하위 항목은 말이나 대화의 세부 정보 파악에 관한 것인데 교육과정에서 '세부 정보' 핵심 개념에 대한 내용 요소로 '대상, 주제, 그림, 사진, 도표'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두 번째 하위 항목은 말이나 대화의 주제 및 요지 파악이며,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줄거리, 주제, 요지'를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였다. 세 번째 하위 항목은 말이나 대화의 논리적 관계 파악이며,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이나 사건의 순서 및 전후 관계, 일이나 사건의 원인 및 결과, 상황 및 화자 간의 관계'를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였다. 다만 내용 요소 중 '일이나 사건의 전후 관계'는 듣기 영역에서 기초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다소 난이도가 높은 요소라고 판단되어 이는 포함하지 않았다. 네 번째 하위 항목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는 '화자의 의도'만 포함하였고, E 수준에는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글(담화)의 목적' 활동은 배제하고 기술하였다. 다섯 번째 하위 항목인 화자의 심정이나 태도 파악 관련해서는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여

2)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재진술 사항은 밑줄 표시하였다.

기술하였다. 한편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을 고려하되, ‘추론하기’와 같은 기능은 E 수준에는 다소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파악하기’를 반영하여 진술문을 기술하였다.

현장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가 수정된 부분은 E의 일반적 특성에서 ‘극히 부분적으로’와 같은 학생 수행 정확성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 문구를 ‘부분적으로’로 수정하였다. 이는 학업 성취율 40%이상의 E 수준에서 수행 정확성 정도를 ‘극히 부분적으로’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의 학교 현장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 말하기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제시된 말하기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 기준 ‘하’를 재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의 말하기 영역 성취수준 ‘E’를 재검토한 결과, 성취수준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리하였다. 말하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 진술문 수준 구분은 크게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글(text)의 수준, 글 제시 방식, 학생이 수행하는 어휘와 언어형식(words & structure) 수준, 학생이 수행하는 결과의 정확성 정도 등 네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듣기 영역에서의 수준 구분에 더하여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어휘와 언어형식(words & structure) 수준 정도를 추가하였다. 말하기 영역의 성취수준 구분 방식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 표 2 ▮ 공통 과목 <영어> 말하기 영역의 성취수준 구분 방식

수준	글(text) 수준	글(text) 제시 방식	어휘와 언어형식(words & structure) 수준	수행의 정확성 정도
A	길고 복잡한 대화나 글			정확하게
B	길고 복잡한 대화나 글			비교적 정확하게
C	비교적 긴 대화나 글			대략적으로
D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부분적으로
E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말하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반영하여 성취수준 E의 진술문을 새로 수정하였다.

말하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하위 항목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활동이나 판단 근거에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요소(〈표 3〉참조)를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 표 3 ▮ 공통 과목 〈영어〉 말하기 영역의 내용 요소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말하기	담화	의미를 전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사물 • 장소 • 의견, 감정 • 그림, 사진, 도표 • 방법, 절차 • 자기소개 • 주제, 요지 	설명하기 표현하기
		의미를 교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사물 • 장소 • 그림, 사진, 도표 • 경험, 계획 •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 • 의견, 감정 	설명하기 표현하기

여기서 수행 활동/판단 근거는 교사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표 4〉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말하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 수준(E, 40% 이상 60% 미만) 진술문이다.

표 4 공통 과목 <영어> 말하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영역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말하기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세부 정보, 중심 내용을 극히 부분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정보를 부분적으로 묻고 답할 수 있다. ³⁾	①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세부 정보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사물, 장소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말한다. • 그림, 사진, 도표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말한다.
		②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중심 내용을 부분적으로 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나 글의 주제나 요지를 말한다.
		③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자기를 소개하거나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해 소개한다. •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말한다.
		④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부분적으로 정보를 묻고 답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사물, 장소 등에 대해 묻고 답한다. • 그림, 사진, 도표 등에 대해 묻고 답한다. •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묻고 답한다.

말하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표 4>과 같이 4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8개의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하위 항목은 말이나 대화의 세부 정보 파악에 관한 것인데 교육과정에서 '세부 정보' 핵심 개념에 대한 내용 요소로 '사람, 사물, 장소, 그림, 사진, 도표, 방법, 절차'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다만 방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E 수준에는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배제하고 기술하였다. 두 번째 하위 항목은 대화나 글의 중심 내용 파악이며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요지'를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였다. 세 번째 하위 항목인 화자의 심정이나 태도 파악 관련해서는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네 번째 하위 항목은 '답화의 의미를 교환한다.'는 핵심 개념을 기반한 정보 교환에 대한 것으로 교육과정

3)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재진술 사항은 밑줄 표시하였다.

내용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람, 사물, 장소, 그림, 사진, 도표, 경험, 계획’을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였다. 한편 말하기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설명하기,’ ‘표현하기’로 기능이 제시되어 있는데 E의 진술문에는 ‘말한다’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현장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가 수정된 부분은 E의 일반적 특성에서 ‘극히 부분적으로’과 같은 학생 수행 정확성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 문구를 ‘부분적으로’로 수정하였다. 이는 학업 성취율 40%이상의 E 수준에서 수행 정확성 정도를 ‘극히 부분적으로’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의 학교 현장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3) 읽기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제시된 읽기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기준 ‘하’를 재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의 읽기 영역 성취수준 ‘E’를 재검토한 결과, 성취수준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리하였다. 읽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 진술문 수준 구분은 크게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글(text)의 수준, 글 제시 방식, 학생이 수행하는 결과의 정확성 정도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읽기 영역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읽기 영역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

수준	글(text) 수준	글(text) 제시 방식	수행의 정확성 정도
A	길고 복잡한 대화나 글		정확하게
B	길고 복잡한 대화나 글		비교적 정확하게
C	비교적 긴 대화나 글		대략적으로
D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	반복하여 읽고	부분적으로
E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	반복하여 읽고	극히 부분적으로

위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반영하여 성취수준 E의 진술문이 새로 수정되었다. 한편 기존의 진술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정보와 맥락 정보를 바탕으로’에서는 ‘맥락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E 수준에서는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사실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으로만 진술문을 수정하였다.

읽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수행 활동/판단 근거는 교사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표 6>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읽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E, 40% 이상 60% 미만) 진술문이다.

표 6 | 공통 과목 <영어> 읽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영역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읽기	<p>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세부 정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4)</p> <p>내용의 논리적 관계, 필자의 의도, 글의 목적,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 낱말, 어구 및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4)</p>	<p>①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세부 정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그림, 사진, 도표 등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p>②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줄거리, 주제, 요지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의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한다.
		<p>③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이나 사건의 순서를 파악한다.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를 파악한다.
		<p>④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글의 목적을 파악한다.
		<p>⑤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파악한다.
		<p>⑥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낱말, 어구 또는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 속 낱말, 어구,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재진술 사항은 밑줄 표시하였다.

읽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표 6>과 같이 6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9개의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하위 항목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활동이나 판단 근거에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요소(<표 7> 참조)를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표 7 공통 과목 <영어> 읽기 영역의 내용 요소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읽기	세부 정보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 그림, 사진, 도표 • 대상, 주제	파악하기
	중심 내용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한다.	• 줄거리, 주제, 요지	파악하기 추론하기
	맥락	글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한다.	•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 • 필자의 의도, 목적 • 필자의 심정, 태도	파악하기 추론하기
	함축적 의미	글의 행간의 의미를 이해한다.	• 문맥 속 낱말, 어구, 문장의 의미 • 글의 숨겨진 의미	추론하기

읽기 영역의 첫 번째 하위 항목은 글의 세부 정보 파악에 관한 것인데 교육과정에서 '세부 정보' 핵심 개념에 대한 내용 요소로 '사람, 사물, 장소, 그림, 사진, 도표'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두 번째 하위 항목은 글의 중심 내용 파악이며,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줄거리, 주제, 요지'를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였다. 세 번째 하위 항목은 글의 논리적 관계 파악이며, 교육과정 내용 요소로 '일이나 사건의 순서 및 전후 관계, 일이나 사건의 원인 및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학교 읽기 수업에 대체로 활용되지 않는 '일이나 사건의 전후 관계'를 제외하고 '일이나 사건의 순서,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만을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네 번째 하위 항목은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는 '화자의 의도' '글의 목적' 활동을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이 하위 항목은 듣기 영역과 달리 '글의 목적' 파악을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고 있다. 읽기 활동에서는 글의 목적 파악 활동이 학습 활동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활동이며, 말(담화)을 듣고 목적 파악하는 활동 보다는 난이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읽기 영역에서의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였다. 다섯 번째 하위 항목인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 파악 관련해서는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여섯 번째 하위 항목은 문맥 속 낱말, 어구, 문장

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교육과정 내용 요소로 ‘문맥 속 낱말, 어구, 문장의 의미, 글의 숨겨진 의미’가 제시되어 있는데 ‘글의 숨겨진 의미’ 파악 활동은 E 수준에서는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하위 항목은 함축적 의미 파악에 대한 성취기준이 E 수준에 포함하여야 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항목이다. 성취수준 E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결과 찬반 의견 수는 비슷하였으며, 추후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타 영역에서는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에 모든 성취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발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성취수준은 핵심 필수기준으로서 모든 학생이 성취해야하는 학습 기준이므로 성취도가 낮은 E 수준에서도 이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장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가 수정된 부분은 E 수준의 일반적 특성에서 ‘극히 부분적으로’와 같은 학생 수행 정확성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 문구를 ‘부분적으로’로 수정하였다. 이는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E 수준에서 수행 정확성 정도를 ‘극히 부분적으로’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의 학교 현장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읽기 영역 내 수행 활동/판단 근거 기술문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을 고려하되, ‘추론하기’와 같은 기능은 E 수준에는 다소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파악하기’를 반영하여 진술문을 기술하였다.

(4) 쓰기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제시된 쓰기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기준 ‘하’를 재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의 쓰기 영역 성취수준 ‘E’를 재검토한 결과, 성취수준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리하였다. 쓰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 진술문 수준 구분은 크게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글(text)의 수준, 글 제시 방식, 학생이 수행하는 어휘와 언어형식(words & structure) 수준, 학생이 수행하는 결과의 정확성 정도 등 네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쓰기 영역에서의 수준별 구분은 말하기 영역과 같다. 이는 말하기, 쓰기 영역이 언어 기능 중 표현 기능으로 분류되므로 동일한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활용하였다. 쓰기 영역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쓰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반영하여 E성취수준 진술문을 새로 수정하였다.

표 8 공통 과목 <영어> 쓰기 영역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

수준	글(text) 수준	글(text) 제시 방식	어휘와 언어형식(words & structure) 수준	수행의 정확성 정도
A	길고 복잡한 대화나 글			정확하게
B	길고 복잡한 대화나 글			비교적 정확하게
C	비교적 긴 대화나 글			대략적으로
D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부분적으로
E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쓰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하위 항목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활동이나 판단 근거에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요소(표 9)참조)를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표 9 공통 과목 <영어> 쓰기 영역의 내용 요소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쓰기	문장	문장을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상황 • 의견, 감정 • 그림, 사진, 도표 • 경험, 계획 • 주제, 요지 	표현하기 설명하기
	작문	상황과 목적에 맞는 글을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상황 • 그림, 도표 • 서식, 이메일, 메모 	표현하기 설명하기

여기서 수행 활동/판단 근거는 교사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표 10>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말하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 수준(E, 40% 이상 60% 미만) 진술문이다.

표 10 공통 과목 <영어> 쓰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영역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쓰기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세부 정보, 요약하는 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주변의 대상이나 상황을 부분적으로 쓸 수 있고, 간단한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부분적으로 쓸 수 있고, 단순한 그림, 도표 등을 설명하는 글을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 ⁵⁾	①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세부 정보를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사물, 장소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쓴다. • 그림, 사진, 도표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쓴다.
		②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요약하는 글을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나 글을 요약하여 주제나 요지를 나타내는 글을 쓴다.
		③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부분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쓴다.
		④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주변의 대상이나 상황을 부분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글을 쓴다.
		⑤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간단한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부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쓴다.
		⑥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단순한 그림, 도표 등을 설명하는 글을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도표를 설명하는 글을 쓴다.

쓰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표 10>과 같이 6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7개의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하위 항목은 대화나 글의 세부 정보 파악에 관한 것인데 교육과정에서 '세부 정보'에 대한 내용 요소로 '대상, 상황, 그림, 사진, 도표'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수행 활동/판단

5)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재진술 사항은 밑줄 표시하였다.

근거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다만 ‘대상, 상황’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은 네 번째 하위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첫 번째 하위 항목에는 세부 정보를 구체화하여 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기술하였고, ‘대상, 상황’에 대해 쓰는 활동은 네 번째 하위 항목의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였다. 두 번째 하위 항목은 대화나 글을 요약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요지’를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였다. 세 번째 하위 항목인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쓰는 것으로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네 번째 하위 항목은 주변의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글을 쓰는 것으로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다섯 번째 하위 항목은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반영하여 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기술하였다. 여섯 번째 하위 항목은 그림, 도표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쓰는 것으로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내용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이 하위 항목은 ‘작문’의 핵심 개념에 대한 성취기준을 E 수준에 포함하여야 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항목이다. 성취수준 E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결과 포함하여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았으며, 추후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타 영역에서는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에 모든 성취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발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성취수준은 핵심 필수기준으로서 모든 학생이 성취해야 하는 학습 기준이므로 성취도가 낮은 E 수준에서도 이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장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가 수정된 부분은 E 수준의 일반적 특성에서 ‘극히 부분적으로’와 같은 학생 수행 정확성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 문구를 ‘부분적으로’로 수정하였다. 이는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E 수준에서 수행 정확성 정도를 ‘극히 부분적으로’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의 학교 현장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쓰기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설명하기,’ ‘표현하기’로 기능이 제시되어 있는데 E의 진술문에는 ‘쓴다’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나. 일반 선택 과목 <독해와 작문>

일반 선택 과목 <독해와 작문>는 읽기, 쓰기의 총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영역은 6개 성취기준, 쓰기 영역은 6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총 12개의 성취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시 이러한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12개 성취기준의 평가기준과 영역별 성취수준을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성취평가제에 따른 평가를 실행하였다.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성취평가제에 기반하여 운영되므로, 본 연구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도 이를 토대로 개발하였다.

(1) 읽기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제시된 읽기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 기준 '하'를 재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의 읽기 영역 성취수준 'E'를 재검토한 결과, 성취수준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리하였다. 읽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 진술문 수준 구분은 크게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글(text)의 수준, 글 제시 방식, 학생이 수행하는 결과의 정확성 정도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읽기 영역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반영하여 성취수준 E의 진술문이 새로 수정되었다.

표 11 일반 선택 과목 <독해와 작문> 읽기 영역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

수준	글(text) 수준	글(text) 제시 방식	수행의 정확성 정도
A	길고 복잡한 대화나 글		정확하게
B	길고 복잡한 대화나 글		비교적 정확하게
C	비교적 긴 대화나 글		대략적으로
D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	반복하여 읽고	부분적으로
E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	반복하여 읽고	극히 부분적으로

읽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수행 활동/판단 근거는 교사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표 12>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읽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E, 40% 이상 60% 미만) 진술문이다.

표 12 일반 선택 과목 <독해와 작문> 읽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영역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읽기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세부 정보, 글의 줄거리, 주제, 요지, 내용의 논리적 관계, 필자의 의도, 글의 목적,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 낱말, 어구 및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⁶⁾	①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세부 정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 그림, 사진, 도표 등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②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한다.
		③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이나 사건의 순서를 파악한다. •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를 파악한다.
		④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 글의 목적을 파악한다.
		⑤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파악한다.
		⑥ 매우 짧고 단순한 글을 반복하여 읽고 낱말, 어구 또는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 속 낱말, 어구,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읽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표 12>와 같이 6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9개의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하위 항목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활동이나 판단 근거에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요소(<표 13> 참조)를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6)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재진술 사항은 밑줄 표시하였다.

표 13 | 공통 과목 <영어> 읽기 영역의 내용 요소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읽기	세부 정보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사진, 도표 • 대상, 주제 	파악하기
	중심 내용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거리, 주제, 요지 	파악하기 추론하기
	맥락	글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 • 필자의 의도, 목적 • 필자의 심정, 태도 	파악하기 추론하기
	함축적 의미	글의 행간의 의미를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 속 낱말, 어구, 문장의 의미 • 글의 숨겨진 의미 	추론하기

읽기 영역의 첫 번째 하위 항목은 글의 세부 정보 파악에 관한 것인데 교육과정에서 ‘세부 정보’ 핵심 개념에 대한 내용 요소로 ‘사람, 사물, 장소, 그림, 사진, 도표’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두 번째 하위 항목은 글의 주제, 요지 파악이며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줄거리, 주제, 요지’를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였다. 세 번째 하위 항목은 글의 논리적 관계 파악이며 교육과정 내용 요소인 ‘일이나 사건의 순서 및 전후 관계, 일이나 사건의 원인 및 결과’를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네 번째 하위 항목은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는 ‘화자의 의도’ ‘글의 목적’ 활동을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다섯 번째 하위 항목인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 파악 관련해서는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여섯 번째 하위 항목은 문맥 속 낱말, 어구,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교육과정 내용 요소로 ‘문맥 속 낱말, 어구, 문장의 의미, 글의 숨겨진 의미’가 제시되어 있는데 ‘글의 숨겨진 의미’ 파악 활동은 E 수준에서는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하위 항목은 함축적 의미 파악에 대한 성취기준이 E 수준에 포함하여야 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항목이다. 이는 공통 과목 <영어> 읽기 영역과 동일한 논의 사항이다. 성취수준 E 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결과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추후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타 영역에서는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에 모든 성취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발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성취수준은 핵심 필수기준으로서 모든 학생이 성취해야 하는 학습 기준이므로 성취도가 낮은 E 수준에서도 이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장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가 수정된 부분은 E 수준의 일반적 특성에서 ‘극히 부분적으로’와 같은 학생 수행 정확성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 문구를 ‘부분적으로’로 수정하였다. 이는 학업 성취율 40%이상의 E 수준에서 수행 정확성 정도를 ‘극히 부분적으로’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의 학교 현장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읽기 영역 내 수행 활동/판단 근거 기술문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을 고려하되, ‘추론하기’와 같은 기능은 E 수준에는 다소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파악하기’를 반영하여 진술문을 기술하였다.

(2) 쓰기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제시된 쓰기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 기준 ‘하’를 재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의 쓰기 영역 성취수준 ‘E’를 재검토한 결과, 성취수준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리하였다. 쓰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 진술문 수준 구분은 크게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글(text)의 수준, 글 제시 방식, 학생이 수행하는 어휘와 언어형식(words & structure) 수준, 학생이 수행하는 결과의 정확성 정도 등 네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쓰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 구분은 말하기 영역과 같다. 이는 말하기, 쓰기 영역이 언어 기능 중 표현 기능으로 분류되므로 동일한 성취수준 구분 방식을 활용하였다. 쓰기 영역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14>와 같다. 쓰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반영하여 성취수준 E의 진술문을 새로 수정하였다.

■ 표 14 ■ 일반 선택 과목 <독해와 작문> 쓰기 영역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

수준	글(text) 수준	글(text) 제시 방식	어휘와 언어형식(words & structure) 수준	수행의 정확성 정도
A	길고 복잡한 대화나 글			정확하게
B	길고 복잡한 대화나 글			비교적 정확하게
C	비교적 긴 대화나 글			대략적으로
D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부분적으로
E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쓰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하위 항목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활동이나 판단 근거에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요소(〈표 15〉 참조)를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표 15 일반 선택 과목 <독해와 작문> 쓰기 영역의 내용 요소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쓰기	문장	문장을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상황 의견, 감정 그림, 사진, 도표 경험, 계획 주제, 요지 	설명하기 표현하기
	작문	상황과 목적에 맞는 글을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 이메일, 메모 미래의 계획, 진로 그림, 도표 	설명하기 표현하기

여기서 수행 활동/판단 근거는 교사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표 16〉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말하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 수준(E, 40% 이상 60% 미만) 진술문이다.

표 16 공통 과목 <영어> 쓰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영역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쓰기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세부 정보, 주제, <u>요지</u> , <u>자신의 의견이나 감정</u> 등을 부분적으로 쓸 수 있고, <u>학업과 관련된 서식, 이메일, 메모</u> 등을 부분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u>미래의 계획, 진로, 단순한 그림이나 도표</u> 등을 설명하는 글을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 ⁷⁾	①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반복하여 듣거나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등장인물이나 대상, 상황 등 세부 정보를 부분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 사물, 장소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쓴다. 그림, 사진, 도표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쓴다.
		②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듣거나 반복하여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나 글을 요약하여 주제나 요지를 나타내는 글을 쓴다.

영역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③ 매우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듣거나 반복하여 읽고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	•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쓴다.
		④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학업과 관련된 간단한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부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 간단한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쓴다.
		⑤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 자신의 미래 계획이나 진로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 자신의 미래 계획이나 진로에 관하여 쓴다.
		⑥ 단순한 그림이나 도표 등을 설명하는 글을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	• 그림, 도표를 설명하는 글을 쓴다.

쓰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표 10>과 같이 6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7개의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하위 항목은 대화나 글의 세부 정보 파악에 관한 것인데 교육과정에서 '세부 정보'에 대한 내용 요소로 '대상, 상황, 그림, 사진, 도표'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다만 '대상, 상황'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은 네 번째 하위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첫 번째 하위 항목에는 세부 정보를 구체화하여 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기술하였고, '대상, 상황'에 대한 쓰는 활동은 네 번째 하위 항목의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였다. 두 번째 하위 항목은 대화나 글을 요약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요지'를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포함하였다. 세 번째 하위 항목인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쓰는 것으로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네 번째 하위 항목은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반영하여 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기술하였다. 다섯 번째 하위 항목은 미래 계획이나 진로에 대한 글을 쓰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반영하여 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기술하였다. 여섯 번째 하위 항목은 그림, 도표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쓰는 것으로 수행 활동/판단 근거에 내용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이 하위 항목은

7)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재진술 사항은 밑줄 표시하였다.

‘작문’의 핵심 개념에 대한 성취기준이 E 수준에 포함하여야 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항목이다. E 성취수준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결과 포함하여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추후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타 영역에서는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에 모든 성취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발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성취수준은 핵심 필수기준으로서 모든 학생이 성취해야하는 학습 기준이므로 성취도가 낮은 E 수준에서도 이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장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가 수정된 부분은 E 수준의 일반적 특성에서 ‘극히 부분적으로’와 같은 학생 수행 정확성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 문구를 ‘부분적으로’로 수정하였다. 이는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E 수준에서 수행 정확성 정도를 ‘극히 부분적으로’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의 학교 현장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쓰기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설명하기,’ ‘표현하기’로 기능이 제시되어 있는데 E 수준의 진술문에는 ‘쓴다’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